조국 전방위 압수수색 '의혹' 털어낸다

검찰, 국민적 관심 고려
자료 확보·신속 효율 수사
입시·사모펀드 의혹 등 대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진행된 27일 오후 검찰 직원들이 부산대학교 학생과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와 단국대, 공주대, 부산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되면서 예상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잡히자마자…"국민적 관심 크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지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전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직후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10여개를 들고 있던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인 이날 오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예상을 깨는 강제수사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은 발 빠른 수사 착수 배경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수사 일정을 조율했다간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논란 소지를 없애면서 증거 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사람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테니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점도 수사를 재촉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자신들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점도 미묘하게 해석될 수 있다. 장관이 아닌 장관 후보자의 지위에 있을 때가 수사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하며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적기라고 검찰이 판단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의혹 모두 수사대상=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사 주체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제까지 조 후보자와 관련해 들어온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해왔다. 형사부는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의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로 확인됐다. 검찰 내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만큼 '조국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그간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다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딸 조모(28)씨의 의료논문 제1저자 등재와 입학 과정, 장학금 수령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등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낸 만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선임의 관련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경남 창원에 있는 웅동학원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됐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조씨의 전처가 제기한 공사대금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한 배경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검찰의 발빠른 수사가 조 후보자에게 독이 되기보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털어내고 신속하게 논란을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 불발

여야 '신경전'…민주당 "가족청문회 안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명단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가족이 핵심 증인인 이상 청문회장에 꼭 불러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맞서면서 끝내 증인 채택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증인채택 합의의 마지막 시한인 28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를 방침이었으나, 이날 오후 25명으로 압축했다.

한국당은 크게 ▲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의혹 ▲ 사모펀드 의혹 ▲ 딸 입시 의혹 ▲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증인 명단을 작성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경우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웅동학원 이사,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제수인 조모씨, 동생 조권씨, 기타 웅동학원 관계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임모씨, 코링크PE 총괄대표, 처남 정모씨, WFM 대표이사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등을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의혹 관련해서는 고교생이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조 후보자 딸에게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를 비롯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에는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옥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증인 명단에 넣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증인 소환 시도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며 결사 방어에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가족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장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온 가족을 모욕주겠다는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당정청 "추석 물가 안정 총력"

고위 협의회…5·18 관련법·빅데이터 3법 등 통과 주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5·18 민주화 관련법 등 중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우선 서민들의 장보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제사용품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가을 축제 및 특산물 할인, 소상공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9월 정기국회의 대책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며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5·18 민주화 관련법,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경제활성 법안,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가정폭력 처벌법등도 중점 법안이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오늘 선거법 표결 나서나

31일 활동 종료…여 "대안 없다면 조정위 의결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7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구성됐다. 이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1일 이전에 여당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 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에 '오늘(27일) 정오까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홍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위원장 권한을 행사, 한국당 장제원·최교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했다. 또한 조정위에는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구성이 완료된 후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조정위 첫 회의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만 불참한 채 진행됐다. 최 의원은 27~28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진행 중인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중이다.

홍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실을 찾아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놓고 구성 과정에서는 막상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정위는 김종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조정위 일정 논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할 때 28일 오전 10시 조정위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연찬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8일 조정위 표결을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 오늘 여수 방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오후 여수를 방문해 소상공인, 벤처기업들과 대화에 나선다.

박 장관은 이날 여수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청취한다.

박 장관은 이어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벤처관계자들의 행사인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여성 상인들의 역할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상생·공존의 문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는 데 벤처업계가 앞장서 주길 당부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성토지 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나대지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무안군 몽탄면 대형펜션
영산강 접 경관 최고 땅 48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포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에 적합. 휴게소도 적합. 32억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합 4500만원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쌍촌동 운천저수지 인근 대지 839㎡ 다가구 등 적합 8억3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가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음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8억 교환 19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종 주거지 답 4413㎡ 축협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음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임야
바로 삽니다
문의.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